

2023 집단교섭 시작



4.13 집단교섭 상견례

4월 13일(목) 14시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2023년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사용자는 계양전기, 대원산업, 대한솔루션, 동양피스톤, 말레동현, 모베이스전자, 신한발브, 에스제이엠, 우창정기, 현대케피코 등 10개 사업장이 참가, 노동조합은 집단교섭사업장과 대각선교섭 사업장을 포함해 15개 사 63명이 참가했다. 올해 사용자 대표를 맡은 말레동현 조희수 상무의 인사말로 상견례를 시작했다.

외중 속 경기 관록 발휘하자

사측 대표는 “집단교섭 참여 2년차에 대표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 근로시간 문제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경기지역은 그동안 타 지역보다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관록이 있으니 올해도 담대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서 잘 풀어갔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조합 대표 이규선 지부장은 “한국와이퍼 투쟁이 이어지고 최근 교섭국면을 여는 노력 중이나 만만치 않다. 사용자의 관심 부탁한다.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만 있어서 복잡하지 않고, 조합의 요구도 많지 않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집단교섭 확대 발전에 고민 많다. 사업장도 늘고 내용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며 인사했다.

이어 노사 서로 참가한 교섭위원 전체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집단교섭 진행을 위한 합의서 내용을 확인, 노사 간 서명했다. 2023년 노사 간 첫 만남에 사측 교섭대표가 불참한 사업장도 있어 향후 반

드시 참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월 20일(목) 14시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2차 교섭을 열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요구안 설명 이후 교섭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2023 방향 공유

상견례가 끝난 후, 지부 참가 사업장들은 각각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대 간 공감과 차세대 역량 강화, 고용안정과 산업전환 속 미래 전망 마련, 코로나로 축소된 일상 활동 회복, 주간연속2교대 등 노동시간과 야간노동 축소, 소수 인원-정년 등 자연감소 속에도 소중한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이 사업장들의 주요 과제였다.

일부 라인 외주화 문제로 조기교섭 중인 현대위아 안산, 계열사 내 차별 감축 투쟁 중인 현대케피코 등 상황도 공유했고, 지부장은 한국와이퍼, 유베이스수원,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 대양제지, 시그네틱스 등 투쟁사업장 엄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4.19 1만 간부 결의대회, 5.20 지부 확산 체육대회, 5월 말 총력투쟁과 7월 총파업 등 한 해 투쟁 흐름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교섭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차 교섭(4.20) 후에는 전체 교섭단 교육, 이후 월 1회 집단교섭-대각선교섭 사업장 교섭위원 전체가 모여 교육-투쟁-교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